



의류학 분야
논문지도 및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윤리 안내



한국의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인사말씀



한국 의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의류학은
눈 부실만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학문의 성장과 발전이 거듭 될수록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연구
윤리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2007년 과학 기술인들의 보편적인 윤리 강령
이 선포된 이래, 한국의류학회에서도 연구윤리에 대한 학술대회, 연구노트
작성법에 관련한 워크숍 개최 등의 학술 활동뿐 아니라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의류학회 윤리강령을 제작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특성
상 연구분야에 따라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셨으
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본 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효선 교수님이 피복과
학분야, 서추연 교수님이 의복구성분야, 이미영 교수님이 패션마케팅분야,
하지수 교수님이 복식미학 및 디자인 분야, 송미경 교수님이 복식사(한국)
분야를 담당하여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본 지침서는 회원
여러분의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윤리
적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
사합니다

2012년 10월

한국의류학회 회장 김은애

안내서를 출간하면서....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연구자에 의해 보고되는 연구보고서의 발표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면서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UNESCO한국위원회 4개 단체는 2007년 4월에 공동으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이 윤리강령에 의하면 과학적 연구대상이 인간인 경우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부합해야 하며, 과학기술인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나 샘플 등의 자료를 연구의 전 과정에서 성실하게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는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앞다투어 연구 윤리와 관련한 지침과 원칙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윤리적인 연구를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모든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연구란 사회적 가치는 물론 본인의 양심에 충실하고 동시에 동료 연구자는 물론 타인의 연구를 존중하는 연구 태도를 의미하며 진행된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서 타 연구 혹은 타 연구자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 있는 연구자는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절차, 연구 결과 발표 등과 관련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절차적 윤리(procedural ethics)를 준수해야 하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자 스스로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연구가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수행한다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윤리적 연구 가치의

확립은 가능할 것이다.

최근 각 학문분야에서 연구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류학회에서도 2008년 4월에 「한국의류학회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학회 회원과 학회가 각각 준수하도록 하였다. 윤리강령 제정 이후 윤리위원회를 조직함은 물론 2009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류학 연구와 윤리” 수행 등 최근 수년간 의류학의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다.

본 안내서는 의류학의 윤리적 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한국의류학회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연구보고서 작성시 필요로 하는 연구윤리에 대한 안내서를 출간하여 회원들의 연구 활동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의류학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조형예술의 다양한 학문을 포함하는 융합학문으로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넓은 학문영역을 종합한 의류학은 다시 피복과학, 의복구성,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및 복식미학 그리고 한국복식으로 세분화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류학 분야의 세부전공별 연구특성 및 연구방법에 따라 학문의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발간된 연구윤리 관련 정보를 의류학 연구자가 세부전공별 연구특성 및 방법에 따라 접하기 편리하도록 재구성 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출판되어 나온 연구윤리에 대한 상당한 양의 정보 가운데 의류학과 관련된 중요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본 안내서를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윤리에 관한 문헌들과 차별화 하였다. 그리고 연구윤리에 관한 자세한 부분이 쪽수의 제한으로 많이 생략된 점이 아쉽지만, 간단하게 요점위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앞으로 연구윤리 분야의 관심이 고조되고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해결이 더 많이 진전되면, 본 안내서도 이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외류학회 회원 여러분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2. 10.

저자일동

목 차

부정일반	· 1
분야별 연구윤리	· 9
· 피복과학 / 9	
· 패션마케팅 / 20	
· 의복구성 / 35	
· 복식미학 및 디자인 / 45	
· 복식사(한국) / 57	
올바른 인용	· 67
저자의 자격	· 75
참고문헌	· 79
부록: 한국의류학회 윤리강령 및 투고 규정	· 85

부정 일반

1.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이란 일반적으로 연구와 관련된 모든 나쁜 행위의 집합이라기보다는 “진실성 검증체계 내에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상의 문제로 연구 부정행위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연구 환경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바람직한 연구 수행은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그릇된 행위가 아닌 연구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연구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리하는 것보다 연구자가 처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자의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권장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중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된 것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연구책임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마틴슨의 연구(Martinson, 2005)로 위조, 변조,

표절 등 미 연방이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 이외에도 생명연구와 관련된 규정 위반, 이해관계 공시 규정 위반, 저작권 문제, 데이터 보관 및 관리, 연구 기획의 충실성, 연구 방법론 설계 등 연구 현장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였다.

마틴슨의 연구 결과 위조, 변조, 표절은 1% 미만의 비교적 드문 일이었으나 불공정한 저작 배분, 데이터의 편향된 해석,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의 생략 등 이른바 의심스러운 연구행위(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QRP)는 20%에 이를 정도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위조, 변조, 표절 등 규정에 의해 정의된 연구 부정행위 이외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는 매우 광범위 하게 존재하며 실제 연구자들의 옳은 행위와 그릇된 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규제 중심의 연구 윤리에 대한 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가치 중심의 연구 윤리에 대한 접근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황우석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 부정행위에 첫째, 위조, 변조 및 표절 둘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셋째, 조사에 대한 방해 넷째, 제보자에 대한 위해 다섯째,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작 배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3.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

1) 연구 수행과정에서의 부정

분야를 막론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문제는 데이터의 진실성에 관한 것으로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에는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가 있다

가. 데이터의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로 결과물 또는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거나 조사와 관찰을 통해 얻어내지 않고 거짓으로 만들어 위조하는 경우이다.

대조군을 따로 측정하지 않고 실험한 후 뒤늦게 대조군의 수치를 임의로 정하여 실험군의 비교 수치를 생산해 내는 경우나 타인이 발표한 논문의 데이터를 자기 것인 양 제시하는 경우도 위조에 해당한다.

데이터의 위조는 훌륭한 연구 결과 기대의 압박에서 시작하므로 데이터 위조로 인한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은 압박의 근원의 제거 혹은 경감하는 것에 있다.

나. 데이터의 변조

데이터의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경우나 연구 기록에서 날짜나 실험 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경우 또한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 등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사진 자료 등에서 일부만을 부각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하는 경우나 설문
문항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경우도 데이터의 변조에 해당한다.

실험이나 조사 과정에서 얻은 방대한 자료를 논문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합리적인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한 정직한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경우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 확보 필요하다.

2) 연구 발표에서의 부정

표절은 위조나 변조와 함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연구 부정행위의
하나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통째로 혹은 핵심적인 부분만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겨오는 고의적인 잘못에서부터 실수로 출처 표기 하나를 빠뜨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잘못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만약 ‘복사하기’와 ‘붙이기’를 반복해서 다른 사람의 문장이나 표현을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사용하면서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표절’에 해당한다.

가. 표절

글쓰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을 옮겨온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며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아이디어 혹은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도 표절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는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쓰는 경우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남의 표현의 짜깁기는 당연히 표절에 해당되며,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6단어 이상이 연쇄적으로 반복되면서 핵심적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명백한 표절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최근에는 표절 방지의 차원에서 영문 논문의 경우 논문 표절 검색 엔진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eTBLast 3.0은 다양한 엔진 중의 하나이다.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도 표절에 해당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모든 글의 내용과 문장은 저자 자신의 생각과 표현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빌려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방식으로 인용하며 인용한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제대로 인용한 경우라도 인용하는 부분은 논문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국한되어야 한다.

표절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자신이 연구에 대해 정직하고 올바르게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각 연구자들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로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태도의 습관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중복게재

중복게재란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같거나 상당부분 중복되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로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는 물론 연구자가 자신이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계열에서 볼 수 있는 중복게재는 주로 동일한 데이터를 두 개 이상의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 중복의 경우로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논문에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속 조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경계가 존재하여 그 판단이 매우 유동적이다. 그러나 그림 하나 표 하나만 같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되므로 다른 논문에서 타 논문의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면 처음 결과가 발표된 논문을 인용해야만 한다.

동일한 그림이나 표를 똑같이 수록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먼저 발표한 학술지의 허락 필요하며 다른 매체에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투고 규정과 관행을 숙지 후 이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찾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해당 학술지의 편집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논문의 철회

-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연구의 결과에 대해 몇몇 동료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동의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학회지에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그 연구가 “사실”로 판명된 것은 아니다. 이미 발표된 논문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조속히 합당한 절차를 밟아 부분 철회나 철회를 하는 것이 윤리적인 학자의 행동이다.
- 최근 논문 철회의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Impact Factor가 큰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이 철회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읽어 작은 오류도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술지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많은 독자를 갖는 것, 다시 말해서 독자의 영역을 국제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 철회 결정에 대한 해석과 주장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 편집인이 논문 철회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관계자 즉, 저자 본인 더 나아가 소속 대학 그리고 학술지 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분야별 연구윤리: 피복과학

1. 연구영역

의류학 영역 중 피복과학분야의 연구는 소재를 대상으로 자연과학/공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시행하는 연구(의류소재, 염색과 가공, 의류관리를 다루는 소재과학), 실험대상이 인간으로 자연과학/의학적인 접근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연구(피복환경학) 및 섬유류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존처리학)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는 소재과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점차 피복환경학 분야의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보존처리학 분야는 연구발표물이 앞의 두 분야에 비하여 적지만, 대상인 섬유류 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분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윤리

- 1) 실험실 작업(실험대상(시험샘플, 실험방법)이 생명체가 아닌) 경우
(한국연구재단 2011b p44)

일반적인 자연과학과 공학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정확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기록, 처리, 분석해야 한다. 자료의 위조와 변조는 연구의 진실성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더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편향되거나 왜곡된 결과를 얻기 쉽다.

자료의 진실성은 연구 진실성의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연구 설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자료를 취하고 버릴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기준이 실험 이전에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자료의 선별이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실험과 조사과정에서는 적절한 기기와 프로그램이 사용되어야 하며 그 정확한 작동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실험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되는 경우 환경안전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험장비를 갖추어 인체가 유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도 관계기관의 시행령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올바른 통계방법으로 분석되어 그 유의성이 판정되어야 한다. 적절한 샘플의 크기와 반복 수 역시 자료의 진실성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들이다. 한편, 실험의 재료, 절차, 방법은 정밀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실제로 실험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올바른 자료의 관리는 실험과정 뿐 아니라 실험 전 그리고 연구종료 후의 자료 보관과 공유문제까지 포함된다.(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pp54)

2) 실험대상이 인간인 경우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때 적절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의사회에서 제정한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소요경비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실험대상이 사람인 경우는 피험자의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해치지 말아야 하고 피험자가 불필요한 위험이나 고통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연구자 본인이 직접 피실험자가 되었다고 하여 윤리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윤리지침이다.

①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경우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또는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연구계획서와 피험자동의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험자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피험자 모집방법, 피험자 확보 방안, 피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연구비 조달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피험자동의서를 받기 전에 피험자 오리엔테이션 또는 피험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피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피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피험자동의서에는 연구 과정, 피험자가 받게 될 위험과 이익, 자발적 참여의사, 피험자 개인정보 보호, 피험자가 실험을 중단할 자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피험자동의서에 피험자 또는 대리인이 자필로 해당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사본은 피험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⑥ 취약한 피험자(아동, 전공학생, 피고용인 등)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는 시험자의 자발적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정운선, 한국의류학회.2008)

3) 실험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2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3845호)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에 따라 이에 필요한 동물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고 실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생물안전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생물안전(biosafety)은 잠재적 감염 우려가 있는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인체 위해성을 분석하고 생물학적 지식과 실험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 등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실험자, 지역 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박정규,황우수, 2011)이다. 피복과학실험 시에 사용하는 미생물의 위험등급, 생물안전수준을 고려하여 실험실 등급별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실험장비를 갖춘 실험실에서 만 실험이 가능하다. 현재 피복과학분야 연구 중 미생물을 취급하고 있는 실험연구는 대부분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5) 유물의 보존처리 경우

유물을 취급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① 예방을 중시하고, ② 원형을 보존하며, ③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④ 가역성이 있는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며 ⑤ 기록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섬유류 유물의 보존처리에서 분해(손상) 방지(보존:preservation)와 훼손의 수리(복원:restoration)가 연구윤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방적 보존의 목적은 유물의 보존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혹은 우발적 요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복원 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 혹은 인적 자원의 가능한계를 초월하는 처치의 포기
- 해당 유물의 본래 가치에 가감이 생길 것이 명확하거나 실제로 발생한 프로세스의 기피
- 문화적 대상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는 부가적 요소에 대한 존중
- 마스킹 등 오리지널의 다른 외부적 요소로써 그 역사적 기록으로써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해석이 어렵게 만드는 것의 제거
- 열화를 겪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안정화 및 강화
-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로써 떨어져 나오거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의 소재 삽입
- 부분이 사라져 틈이 확연한 경우의 재건. 이 경우, 사용하는 소재는 완성 되었을 때 반드시 원래의 것과 차이가 있어 교체된 부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 그 존재가 대상의 물리적 예방 보존이나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경우, 식별할 수 없는 요소의 교체는 그 중립적인 성질이 원래의 구조와 전체적인 특정 양식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식별이 가능한 기술과 소재, 그리고 형태로 만들어져야 함
- 모든 수복 작업의 수행은 가역적이고 무해한 관점에서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결정
- 모든 수복 작업의 기록은 철저한 서류 일체로 구성
(UNESCO,1988)

3. 연구노트 작성법

1) 연구노트 란?

연구노트는 연구실내의 축적된 정보, 노하우 등 지식의 공유를 통한 효율적 프로젝트 추진과 후진양성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신속하게 후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 연구의 낭비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연구 노트는 기술의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구일지와 연구노트는 다르다. 자연과학계열의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 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로 연구자의 아이디어, 발명의 과정, 실험수단 및 결과와 관찰에서부터 새로운 현상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의 정신적/물리적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지이다. 다시 말하자면 발명의 착상부터 지식 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고 증인이나 확인자의 서명이 포함된 일지가 연구노트이다. 즉, 연구지는 개인적 일 수 있으나 연구노트는 남에게 보여주고 연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이다.

또한 최근 크게 문제화되고 있는 연구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연구자 권리의 확보 수단이며, 학술지에 논문 제출 시 검증 자료이다.

2) 연구노트의 내용

① 실험노트에 기술되어 있어야 할 기본 항목

- 무엇을 하였나? - 실험제목
- 언제 하였나? -일자, 시간

- 왜 하였나? - 목적
- 어떻게 하였나? - 방법
- 사용된 재료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나? - 실험재료의 구체적 명시
- 무엇이 발생하였고, 하지 않았나? - 판정
- 이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 - 결론
-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였나? - 고찰
- 이제는 무얼 할 것인가? - 차후 계획

② 실험노트 작성시 요구되는 기본 원칙

- 타인이 읽을 수 있도록 쓰여 있어야 하고,
-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 정확하고, 완성된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 권리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 (지도교수,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의 관리담당자 등)이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되어야 하고,
- 그리고, 당신이 하였던 실험을 당신은 물론 타인이 읽고서 재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의 원자료 (측정한 원래의 수치가 기록된 인쇄물, 사진, 또는 실험결과물 등의 부착물)는 반드시 연구노트에 철해서 보존되어 있거나 보존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연구 노트의 원본 또는 복사본은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졸업, 또는 퇴사 등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실험노트의 중요성

- 실험노트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근거자료의 원천기록이다.
- 실험노트는 보고서, 특허출원, 저널논문, 학위논문의 기초자료이다.
- 실험노트는 당신의 과학적 기여와 업적의 궁극적 기록물이다.
- 좋은 실험노트는 연구의 정확성, 재현성, 신뢰도를 부여하는 근거이다.
- 추후에 타인에게 본인실험을 이해시키고 결과재현을 위한 실험을 가능케 하는 원전이 된다.
- 연구지원기관에서는 필요 시에 연구자의 실험노트와 자료에 대한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비수혜자에게 있어서 실험노트 작성은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 특허출원 시에 심사관에게 실험노트를 제시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때 실험이 실시된 정확한 날짜를 알 필요가 있거나 실험에 관련된 추가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허를 염두에 둔 연구는 처음부터 보다 엄격한 실험노트작성요령(최소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논문투고 시 편집인은 논문에 기술된 내용의 진위를 판정하기 위해 실험노트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④ 연구노트 작성 원칙

- 연구노트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첨삭을 할 수 없도록 작성된 연구노트 페이지에는 빈 공간이 없어야 한다. 이는 발명의 시점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법적 분쟁 시 이러한 연구노트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연구일지는 기록의 수정에 대해서는 엄격해서 연구노트는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전의 기록을 보이지 않게 지우지 말고 불가피 할 경우 중간 줄을 사용해서 수정하되 수정자의 서명을 남겨 확인하도록 한다.

⑤ 연구팀의 연구노트 작성 방법

- 연구노트는 개인이 자기의 연구노트를 기재하되, 한 프로젝트를 한 권의 노트에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권장되고 있다. 한 개의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수행할 경우 연구노트 앞면에 사용자의 이름들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 방법은 참여연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성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연구노트 작성 전담자를 두어 참여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수행내용을 작성 전담자가 취합해서 작성요령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작성자 서명과 작성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림 1>과 <그림 2>는 이상의 요령을 기본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고안된 연구노트를 예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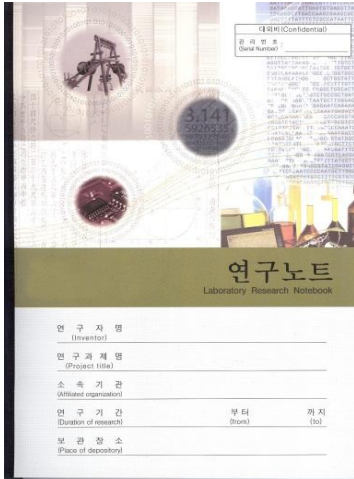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노트 겉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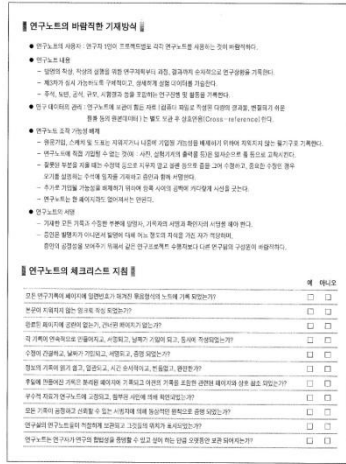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노트 속 표지

여기에 목차가 추가되며 속지에는 쪽번호가 미리 인쇄되어 있고 테두리가 있어 그 안에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매 쪽 별로 과제명과 과제번호 기입란을 두며 연구수행과정과 결과를 직접 기록하는 기록자(또는 발명자)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점검자(확인자)의 서명과 서명 날짜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전자연구노트

최근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기록물이 디지털화 되면서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1990년대부터 전자연구노트 제품이 개발 및 상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용량 자료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디지털화된 실험내용에 대한 정리가 용이하며 효율적인 연구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 덕분에 시장이 활성화 되었다 (특허청, 2011 p74) 전자노트는 data management system,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document management system 등을 포함하며, scientific content management system, library, data pipeline, office application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웹 정보나 과학데이터베이스와의 hyperlink, 실험실의 기구나 시약관리 기능 등 통합적인 연구실 운영 시스템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2010, pp8-9)

⑦ 유물의 보존처리

처리대상이 유물인 경우 앞의 연구노트 이외에 보존처리 전/후에 발견한 모든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 후 사진과 함께 세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그 유물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보존처리를 위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 함이다.

다음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 유물명, 소속(위치), 목록번호
- 일자
- 실측, 소재, 기법
- 보존상태, 역사적 분류
- 보존처리과정, 처리방법에 대한 사유
- 보존처리 후 상태
- 전시 및 보관을 위한 제언
- 보존처리일
- 기록자

분야별 연구윤리: 패션마케팅

1. 연구 영역

의류학은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조형예술의 다양한 학문을 포함하는 종합학문으로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류학회는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피복과학분과, 패션마케팅분과, 의복구성분과, 복식미학·디자인분과, 한국복식분과로 나누어 학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학문인 의류학은 각 학문분야에 따라 연구의 특성이나 연구방법이 다양하므로, 분야별로 연구윤리의 지침을 확립이 필요하다.

‘한국 의류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2004)에서는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주제를 소비자행동, 유통 및 업체 관련, 글로벌 마케팅, 기타 로 나누고 있다. 학술지에 발표된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 논문의 주제 및 유형을 살펴본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를 소비자특성 연구, 소비자지각과 커뮤니케이션 연구, 소비자요인-구매의사결정과정 연구, 마케팅요인-구매의사결정과정 연구, 상황요인-구매의사결정과정 연구, 구매의사결정과정 연구, 기업연구로 나누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소비자의 사회심리적 특성이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리, 이미영, 2007).

패션마케팅 관련 논문은 대부분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유리, 이미영, 2007). 하지만, 정성적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0년대 이후 표적집단면접이나 심층면접 등 면접법, 문헌 분석, 사례연구 등을 이용한 질적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양적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살려, 질적 연구를 통해서 양적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수립하며 양적연구로는 질적 연구가 제시한 가설은 검증하고 일반화하는 식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타당성을,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은영, 정인희, 2010).

2.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윤리

사회과학분야에서는 표절(자기표절), 공동연구로 인한 저자표시문제 등이 연구윤리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패션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설문지방법을 이용한 양적연구 진행 과정 중에 통계분석과 해석과정에서 위조나 변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연구에 대상자의 인권, 안전 등을 깊이 고려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한국연구재단, 2011a). 본 장에서는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방법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연구윤리사항을 설문 조사를 이용하는 양적 연구방법과, 면접법등을 이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양적·질적 연구방법 공통 연구윤리

① 연구의 주제 선정: 윤리적 연구의 시작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없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 선행연구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이미 진행된 연구가 아닌지, 선행연구와 차별점이나, 학문적 의의가 충분한지를 살펴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윤리적 연구의 시작이다. Lincoln (1991)은 연구는 “연구자가 보기에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하며, 연구자는 자기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연구를 포기해야 할 윤리적 책임을 진다 (p.286)”라고 밝히고 있다.

② 올바른 문헌고찰

불필요한 문헌고찰 분량 늘리거나, 자신이 많은 문헌 고찰을 했음을 드러내고자 실제 고찰하지 않은 문헌이나 꼭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문헌을 넣음으로써 표절이나 부정직한 인용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헌고찰의 분량에 연연하기보다는 필요한 문헌을 실제로 고찰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연구대상자의 선정

- 연구대상자 선정 시 인종이나, 성, 문화 등에 따라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특정 인종이나, 문화집단에 연구의 혜택이 돌아가거나, 혹은 위험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 등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인 경우 연구대상자의 선정이나 동의 과정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자발적 참여

자유롭고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예: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과 절차,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불편사항, 연구의 스폰서 등의 내용)가 주어진 상태에서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선행되어야 한다.

- 연구자와 연구대상자(혹은 연구참여자)¹가 상하관계나 의존관계에 있을 때, 연구자가 연구 참여를 요청한다면 연구대상자가 이를 거부하지는 어려울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 양적인 설문연구에서도 수업 시간 중에 교사나 교수가 설문지를 배포하는 경우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 참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만약, 연구 참여가 수강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일단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연구대상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연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연구 참여의 동의: 숙지된 동의 (informed consent)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과 절차,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불편사항, 연구의 스폰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¹ 연구방법에 따라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로 제시하였다.

한다(Christians, 2000).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².

- 연구 참여 동의를 위해 제공되는 설명문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이나 언어능력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가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국어나 의사소통이 원활한 언어로 동의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서이종, 2012).
- 패션마케팅이 분야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가 신체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의학이나 생명과학 연구에 비해서 매우 낮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나 당혹감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위험 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필요하며 (서이종, 2012), 이러한 내용이 연구 참여 동의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 흔히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서명하고 한 장씩 나누어 갖는다. 하지만, 양적 연구에서는 설문지 표지에 있는 설명문만으로 충분히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여기고, 설문지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질적 연구만큼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²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2.1일 공포) 개정안에 따라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를 포함한 모든 인간 대상 연구로 범위가 확장되었고, 2013년 2월 2일부터는 모든 대학 및 연구기관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간 대상연구의 연구대상자 보호를 법률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연구대상자는 연구의 피해나 위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어야 (자발적 탈퇴) 한다.

⑥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이란 연구자가-비록 어느 자료가 어느 대상자를 설명하는지 알고 있다 해도- 그 정보를 기밀적으로 보관하기로 합의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가능하면 연구대상자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등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적게 수집하도록 연구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나, 만약 민감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면 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이종, 2012).

⑦ 연구 자료의 보존과 폐기

- 연구가 종결되고 결과보고를 마친 후에는 연구 자료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 연구자료 보존 기간 중에는 자료 접근 권한이 없는 3자가 연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와 연구윤리

① 설문지 문항 개발

-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설문방법의 경우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설문 문항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등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는 연구의 변조에 포함된다.

- 설문지 질문의 문장이나 표현이 연구대상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질문은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질문 내에 어떤 가정이나 암시가 포함된 유도질문 (leading question)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동일한 설문에서도 설문지 내에서 배치위치에 따라 응답률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문지 작성 시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작성한다.³

② 자료수집

- 연구자가 설문지에서 체크되지 않은 곳을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조작하거나, 데이터마사지 등으로 통해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등, 원하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는 명백한 연구부정행위이다. 데이터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위조이고, 데이터선정 기준이나 절차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행위는 변조이다 (한국연구재단, 2011a).
- 연구 자료의 통계학적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자료를 첨가하는 행위는 위조로 명백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통계분석시 표본의 수에 따라 연구결과의 유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의하지 않은 통계결과가 나온 연구의 설문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³ 선행연구에 따르면 (Kraut, et al., 1975) 질문의 위치가 설문지 앞에서 위로 옮겨지면 무응답의 문항수가 늘어나고, 극단적 긍정이나 부정의 응답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질문이 뒤쪽에 위치하면 앞쪽에 위치할 때보다 긍정 응답자의 비율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유익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한 예이다.
- 학문의 발전보다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연구 자료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는 연구부적절행위(research misbehavior)에 해당된다. 조사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 수치가 나왔을 때, 연구자가 그 일부만을 주관적으로 취사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을 옳지 않다.
 - 자료의 선택은 연구 계획 단계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예상에서 어긋나더라도 기준에 합당한 자료를 결과에 포함되어야 한다(한국연구재단, 2011a).

<표 1>

연구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연구수행 시 주의해야 할 항목들의 예
(한국연구재단, 2011a, p.54)

단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의 예
연구계획	-통계학자와의 상담을 통한 치밀한 연구설계 -동물과 인간이 대상이 되는 경우 IRB의 승인
연구 및 데이터의 분석과 선택	-데이터 선별의 논리와 기준의 설정 -정확한 방법에 의한 데이터 확보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의 선별 -정확하고 유의한 통계처리 -정확한 데이터 기록과 보존
데이터 보존과	-연구노트의 보존

소유권	-데이터 수집, 활용과 공유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권리 행사
-----	-----------------------------------

③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 익명성(Anonymity)이란 연구자조차도 설명하는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이란 연구자가 그 정보를 기밀적으로 보관하기로 합의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설문지 등을 이용한 양적 연구에서는 subject number로 데이터를 기입함으로써 익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설문지에 연구 참여자의 이름이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위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도록 한다.
- 양적 연구에서는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집단화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비밀보장이 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모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례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집단 간 비교를 하는 경우 집단의 정체가 파악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수집된 설문지를 폐기할 때에도 이러한 비밀보장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분쇄하여 폐기하는 것이 좋다.

④ 자료 분석 및 해석

-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 중 변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설명해야 한다.
-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그릇된 해석을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 이론 및 방법론, 분석기술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와 연구윤리

①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 익명성은 연구자 자신도 연구 참여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면접을 하고 면접내용을 전사하는 경우가 많아 익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 대부분의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는 가명이나 번호로 제시되고, 성별, 연령, 학력, 경험한 사건의 유형과 특성, 기간 등에 대한 기본 정보만을 제시하는 등 연구 발표시 연구 참여자를 익명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은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밀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Christians, 2000). 하지만, 연구에 따라 익명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가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또한, 질적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에 친밀한 관계 형성을 이루면서 연구 참여자의 사적인 정보까지 연구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사적인 정보 보호는 꼭 지켜져야 한다.

② 면접의 진행

면접 진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연구 설계에서 주어진 면접 방식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 선정된 면접 대상자를 임의로 대체하거나, 심층면접의 경우 편한 대로 한 세대나 집단 내에서 복수로 면접해서는 안 된다.
- 면접 시 다른 사람에게 응답자를 만나 면접해 주도록 부탁해서는 안 된다.
- 면접원이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시사 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질문을 바꾸어 가면서 원하는 대답을 얻고자 시도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 참여자의 내용검토

- 연구과정의 윤리성과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 면접의 경우 특히) 연구 참여자의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검토가 이루어진다.
- 이 내용검토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삭제 혹은 변경 요청은 반영되어야 한다. 내용 삭제 요청이 부담스러워 연구 참여자의 내용검토를 수정을 하기 어렵도록 요약된 내용만을 검토하는 간략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옳지 않다.

④ 연구의 해석적 충실성⁴ 확보

⁴ 질적인 연구에서 "해석적 충실성"은 양적연구의 통계를 통한 정확성이나 정교함

-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에서와 같은 통계적인 검증이나 계수가 제시되지 않고,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자료 분석과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구자의 편협한 관점에서 자료가 해석되는 것은 아닌지, 의도적인 생략이나 축소가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 배경, 맥락을 충실히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 분석과정에 내부 및 외부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옥순, 2001; Christians, 2000).
- 연구 참여자의 진술이 의도한 바와 맥락에 부합하여 인용되어야 하며,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참여자의 진술이 편집되거나 연구자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정리해서는 안 된다.

4)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질적 연구의 경우 양적 연구에 비해서는 연구 참여자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므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상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어야 한다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윤리규정, 2012).

3. 패션마케팅 분야 연구노트 작성법

과는 다른 것으로, 다층적 해석이 가능하고 문화적 복잡성(cultural complexity)이 만연된 삶을 진지하고 충실히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Christians, 2000)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 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연구노트의 주된 목적은 연구자의 연구 활동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데 있다(권철홍, 2010).

일반적으로 이공계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노트는, 패션마케팅 연구 분야에서 이공계에서 활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패션마케팅 분야에서는 연구과정 기록 및 관련 자료 보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트 작성 시 앞 페이지에서부터 차례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원칙의 경우도 패션마케팅 분야에서는 참고문헌의 관리는 연구노트 뒷부분에, 자료보관은 연구노트 cover를 활용하는 등 이공계 연구노트 작성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노트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⁵.

1) 연구 주제 도출 시 활용

- 연구 아이디어나 의문점 등이 생각날 때 기록
- 의문점을 기록하고 관련 선행연구조사를 기록하면서 연구주제 도출에 활용

2) 연구 방법 기록

-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 도출 과정을 기록

⁵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노트 작성에 대한 내용은 한국의류학회에서 2010년 3월 26일에 "의류학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라는 주제로 개최된 연구노트작성 워크숍의 패션마케팅분과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양적 방법: 설문조사 방법의 경우 문항구성, 척도선정과 같은 설문지 작성과정을 기록. 연구모델 수립과정 기록 등
- 질적 방법: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과정과 기록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러한 기록을 위한 연구노트의 활용 필요

3) 연구 진행 세부 사항 기록

- 연구 진행 과정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보고서나 논문 작성 시 활용
- Focus Group Interview나 심층 면접 시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
- 인터뷰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 기록
- 인터뷰 script 첨부
- 인터뷰 coder에 대한 정보 기록
- 연구 자료의 정리, 집합 기능으로 활용: 연구노트 뒷편에 데이터 넣을 수 있는 포켓 설치 등을 통한 자료 통합 기능 강화

4) 자료 분석 과정 기록

- 데이터 기록 및 보존에 활용
- 통계분석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시 활용
- 연구노트는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근거자료의 원천 기록으로 보고서, 저널논문, 학위논문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매 단계별로 세세히 기록하여 연구의 정확성, 재현성,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5) 참고문헌 관리

- 관련 참고문헌을 접할 때 마다 연구노트에 기록하여 논문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신문, 인터넷 기사 등 관련 자료를 접할 때 마다 연구노트에 정리, 보관.

분야별 연구윤리: 의복구성

1. 연구 영역

한국의류학회에서는 2008년 4월에 연구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학회 회원과 학술지 발간 기관에 대한 기본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특히 의류학 분야는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 등 여러 학문과 연계된 복합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학문의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가 요구되며, 의류학 분야 내에서도 세부전공별 연구특성 및 연구방법에 따라 그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연구윤리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국 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의류학’에서 제시한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크게 7개의 연구영역 즉, 교육 중심의 커리큘럼에 관한 연구, 의복구성과 관련된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의복의 착의기체인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형관련 연구, 패턴설계에 관한 연구, 의복의 생산 및 소재에 따른 봉제기법에 관한 연구, 의복의 기능성 및 맞춤새를 분석하는 착의평가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능성 의복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었으며, 각 연구영역에 대하여 세부영역을 설정하였다. 연구주제별 분포 및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체형관련 논문이 전체 논문 중 46.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패턴 관련 논문(18.4%), 특수복 관련 논문(17.6%), 착의평가(8.3%), 의복생산(6.2%), 디자인(2.9%), 교육관련 논문(0.6%)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학술단체연합회, 200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복구성학분야에서는 연구방법이 다양하며

최근에는 3D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논문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연구특성상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 윤리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윤리

1) 피험자에 대한 연구윤리

의복구성의 논문은 의복의 착의기체인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험자의 선정이 논문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므로 피험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연구윤리 뿐 만 아니라 인권윤리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험 시 피험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가. 피험자의 실험참여 동의서

피험자에게 실험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실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한다. 소아나 미성년자가 연구에 참여할 때에는 법적으로나 발달 정도로 보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므로, 연구참여에 대한 소아의 승낙과 부모의 허가가 필요하다(대한의과학술지편집인협의회,2008).

의복구성학 분야에서 정해진 피험자 동의서 관련 형식은 없으나 서울삼성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http://www.e-irb.com>)에서 제시한 임상실험용 피험자 동의서를 참고로 작성한 피험자 동의서의 예는 <그림1>에 제시하였다.

나. 사진촬영 및 사진게재에 대한 기준

체형연구의 경우, 간접측정 시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구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시 안대 등으로 눈을 가려 얼굴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논문에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익명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 실험시간 및 실험환경에 대한 기준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실험 시 요구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상소요시간을 미리 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실험 중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충분한 문제점을 검토한 뒤 실험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석고실험이나 인체측정 등 탈의가 요구되는 인체실험은 실험실을 적정온도로 유지하여야 하며, 피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숙련된 실험인원만 배치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실험을 마칠 수 있도록 하며, 실험시간이 긴 경우에는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외에도 실험조건 및 실험환경에 따른 피험자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피험자 동의서
(일반 연구용)

연구 제목 :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연락처)	
공동연구자: (성명)		(소속)		(연락처)	

* 단일 본 연구에 윤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위험이나 불편 또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상기 연구자에 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목적에 대해 정확히 기술한다.
2. 연구 과정: 실험과정 및 소요시간 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3.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불편사항: 실험결과에 따른 위험성, 불편성 등에 대해 자세 하게 서술한다.
4.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실험결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한다.
5. 자유 의사에 의한 연구 참여 동의 및 철회: 실험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6.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는 철저의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7. 피험자로서의 권익에 관한 정보 제공: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설명을 한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동의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본인 이 공급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므로 동의서에 서명하며 동의 후에 동 의서 사본을 제공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피험자 : (성명) (서명) (서명일)
 법정대리인(필요 시) : (성명) (서명) (서명일)
 (피험자와의 관계)
 알리인(필요 시) :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성명) (서명) (서명일)



<그림 1> 피험자 동의서-예

<그림 2> 피험자 사진촬영의 예

2) 데이터분석

가. 동일 데이터 분석방법

의복성학의 논문은 실험결과와 데이터분석에 따른 연구가 일반적이다. 실험내용에 따라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방법을 달리 하여 분석하는 경우(예, 직접측정치에 의한 체형분석, 간접측정치에 의한 체형분석), 피험자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하여는 선행연구를 밝힘으로써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표, 그림에 대한 인용

연구방법 또는 결과부분에서 표, 그림을 인용할 때는 표, 그림 아래에 인용한 문헌 및 페이지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며, 그림의 경우, 연구내용에 맞게 약간의 수정을 하더라도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또한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참고문헌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참고문헌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 패턴인용

패턴설계를 위한 연구논문에서는 비교패턴의 출처 및 년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업체패턴의 경우, 업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호로 표시하여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설문조사 및 관능검사

가. 문항선정

설문조사 또는 관능검사를 행하는 경우, 문항선정에 대한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의 경우, 실험의(實驗衣)는 기호로 코드화 시켜 응답자 또는 피험자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데이터분석

얻어진 데이터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조작을 할 수 없으며, 관능검사의 경우는 가능한 한 피험자의 수를 늘려 객관적이며,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4) 단계적 실험논문의 인용

가. 서론부분에서의 인용

의복구성학 분야의 논문에서는 단계적 실험을 통한 결과분석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서론부분에서 선행연구의 인용과 내용면에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단계별 실험논문을 동시에 각각 게재할 때에는 먼저 심사가 진행되어지는 논문을 선행연구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결과부분의 논의에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의 연계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연구방법 및 결과분석에서의 인용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실험연구일 경우, 또는 피험자는 다르지만 연구방법이 동일한 경우에서도 중복되는 데이터에 대한 인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의복구성분야의 연구노트 작성법

1) 인체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의 경우

- 피험자의 실험참여 동의서 첨부 및 보관: 피험자에게 기본적인 실험내용 및 과정을 설명해 주고, 실험환경 및 안정성에 대하여 설명함
- 인적사항 및 기본 데이터 기입-인원이 많은 경우, 매일 측정된 인원의 명수와 명단 기입하고, raw data의 보관장소 기입(코드화)
- 사진촬영의 경우, 사진촬영조건 및 결과물 첨부(출력하여 연구노트에 붙임)
- 인체측정항목을 정하는 경우, 참고문헌을 반드시 명시하고 정해진

항목 기입

- 실험소요시간 및 실험환경에 대한 기준 기입-실험 시 요구되는 기본상황과 소요시간 기입(예비실험과 본 실험을 별도로 기입)
- 피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개인데이터(사진자료 포함)에 대한 비밀보장 및 약약서 첨부

2) 데이터분석이 요구되는 연구

- 사용한 통계프로그램과 분석절차 기입- 분석방법, 변수명, 결과물을 반드시 출력하여 붙임(data cleaning 방법 명시-예비실험을 통한 오류정정 및 과정 제시)
-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한 데이터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확인과 함께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첨부
- 통계분석일 경우,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반복 분석할 경우, 각 단계별 결과물 첨부-최종 결과물에 대하여는 최종이라고 명시할 것
- 단면도와 같은 그림을 분석할 경우, 분석방법에 대한 참고문헌을 밝히거나, 본인의 독창적인 연구방법의 경우, 분석방법에 대한 기준과 설명을 상세히 기재할 것
- 패턴의 경우, 비교패턴의 출처 및 년도를 명확히 기재함. 업체의 패턴(논문 작성 시에서는 익명으로 하되, 연구노트에는 업체명 명시)을 복사하는 경우, 복사기준과 과정을 사진으로 제시하여 연구노트에 붙임

3)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

- 문항선정에 대한 인용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

- 설문조사 대상에 대한 기본 데이터(설문조사 날짜, 장소, 설문조사 방법, 소요시간, 응답자 수 등)를 정확히 기입-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기본 데이터 기입하도록 함
- 회수한 데이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길 것), 총 몇 부 중 몇 부를 선택하였는지 명확히 기입하도록 함
- 회수된 설문지를 코드화하여 입력된 데이터와 동일하게 하고, 보관하고 있는 raw data의 보관장소를 기입함(코드화)
- 데이터의 임의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입력된 raw data는 출력하여 출력한 날짜와 시간을 기입하고 연구노트에 붙임(연구책임자의 확인을 받음)
- Missing data의 경우, 문항의 경중에 따라 연구자가 처리하고, 그 근거는 연구노트에 제시함

4) 착의평가를 통한 연구

- 착의실험의 경우, 기본 착의조건에 대해 반드시 명시함
- 착의실험인 경우, 실험의를 코드화하여 응답자가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노트에 기록하여 데이터가 혼동되지 않도록 함
- 실험의를 착의할 경우, 사진으로 남겨 연구노트에 붙임
- 기능성평가의 경우, 동작설정은 참고문헌을 반드시 제시하고, 연구자의 의도로 새롭게 선정한 동작은 그 기준과 동작의 설정방법을 정확하게 기록함
- 여러 벌을 착용할 경우, 무작위로 착의시켜 실험복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시켜야 하며, 피험자마다 착용한 순서를 연구노트에 기록함

- 평가단에 대한 설명제시(평가단의 규모, 기준 등)
- 평가환경에 대한 제시

5) 3-D scanner 사용 및 데이터 분석 연구

- 사용한 기기명 및 사용 장소, 날짜,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반드시 기입
- 데이터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버전 등 명시)에 대하여 반드시 기입
- 결과물을 출력하여 연구노트에 붙임
- 분석방법 또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확한 근거 기입
- 데이터분석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업체의 내용 확인서(e-mail 첨부 가능) 및 결과물 첨부

분야별 연구윤리: 복식 미학 및 디자인

1. 연구 영역

의류학은 복합학문 분야에 속하므로 관련되는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과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가 수행된다. 따라서 복합학문 분야의 연구자는 관련된 여러 학문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지식과 연구방법 뿐 아니라 각 분야에 관련된 윤리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백희영, 2008) 의류학 내에서 복식미학 및 디자인 분야 연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지침을 정리해 보고자하며 이때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은 물론 예술 및 디자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복식 미학 연구는 의복과 예술, 의복과 문학, 복식미의 상징적 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디자인 연구는 의복 디자인 요소, 디자인 원리, 컴퓨터 활용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정찬진 외, 1991)

1990년 이후 의류학에서 복식 미학 및 디자인 분야의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 연구 분야는 연구 논문뿐만 아니라 상표나 디자인 등에 있어서 독창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연구 논문에서의 표절은 물론 연구를 위해 제작한 작품에 대한 표절 방지에 관련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자연과학 연구 분야의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실험 결과의 조작이나 허위 과장과 관련된다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위반 사례는 표절, 이중게재 등과 같은 것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공학이나 자연 과학 분야와

비교하여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의 연구부정행위는 개인적 차원의 것이 경우가 많다.(정연홍, 2007)

2.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윤리

1) 연구 방법

복식 미학과 디자인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크게 질적인 연구방법과 양적인 연구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1990년부터 2004년의 연구 중 질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한 복식 미학 및 디자인 연구는 72.4%에 이르나 1997년 이후 양적인 연구 방법 사용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이다.(Sook Eun, Jae-Ok Park, 2006)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도구(tool)를 기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문헌 연구, 설문 연구, 이미지 분석 연구, 디자인 개발 연구가 있다. 각각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 연구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문헌연구(documentary research)는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새로운 사실이 문헌자료를 통해 규명되는 연구이다. 문헌연구는 문헌자료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시 역사적 연구(historical research), 비판적-분석적 연구(critical-analytical research), 가설도출연구(hypothesis generating research) 등으로 구분된다. 문헌연구에는 문헌에 제시된 내용을 수량화하는 양적 연구도 포함된다.(이은영 외, 2010)

연구의 기본이 되는 자료가 문헌으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문헌자료의 선정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특정시대의 복식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문헌의 대표성, 전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문헌연구는 논지를 밝히는데 사용된 내용에 대해 문헌자료를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주방식으로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은영 외, 2010)

나. 설문 연구

실증적 연구의 하나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실제적인 경험 혹은 조사를 통해 증명해내는 연구이다. 설문 연구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의류관련 경험을 직접 물어서 조사하게 된다. 대부분의 설문을 통한 조사 연구는 현재 상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상을 가져오는 원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관련성의 증명과 추리에 의한 해석이 중요하다.

다. 이미지 분석 연구

이미지 분석 연구는 사례 연구 중의 하나로 시각적 단위를 대상으로 이의 특징을 포괄적인 관찰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시각적 단위는 패션 컬렉션이나 잡지의 사진, 패션디자이너의 작품 이미지, 영상자료 혹은 개인 소장 시각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된다. 이미지 분석 연구에서는 시각 자료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시각 사례의 일반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사례의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라. 디자인 개발 연구

디자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연구가 있으며 이 때 연구의 결과물은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제시된다. 디자인 개발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헌 연구, 설문 연구, 이미지 분석 연구 방법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때 결과물의 독창성이 연구의 성패를 가능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며, 결과물에 이르기까지의 디자인 전개 과정의 논리성 또한 중요하게 평가된다.

2)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윤리

복식 미학 및 디자인 분야의 연구는 실험 연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실험 과정에서의 여러 부정행위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인문학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저자 배분의 문제도 드물게 일어나는 편이다. 그러나 인문학 분야나 사회학 분야에서의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의 문제는 물론 자료의 변조와 위조의 문제가 중요하다. 복식 미학 디자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두드러지는 연구 윤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빈약한 연구 설계, 데이터 관리의 소홀, 불성실한 연구 기록, 참고문헌의 부정확성 등이 있다.

다음은 복식 미학 및 디자인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헌 연구, 설문 연구, 이미지 분석 연구 그리고 디자인 개발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윤리적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다.

가. 문헌 연구

문헌 연구의 경우 정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문헌 선정에 있어서

치밀한 연구 설계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연구자는 문헌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 활용과 공유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문헌 연구 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표절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표절과 부적절한 출처 표시에 의한 표절이 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텍스트 표절, 원 저작물의 구조 표절, 말 바꿔 쓰기 표절, 모자이크 표절 등이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다시 말 바꿔 쓰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원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타인이 글을 요약하여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또한 원본에서 직접 보지 않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원본을 본 것처럼 인용한 경우 표절에 해당하며,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출처 표기로 인한 표절에 해당한다.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말 바꾸어 쓰기와 인용 부호를 표시하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한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문헌 즉, 잡지, 논문, 단행본 등 매일 매일 연구하고 학습한 서적의 서지 사항과 페이지를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온라인으로 정보를 검색할 경우 사이트 주소와 시간을 포함하는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여 연구 노트에 남겨야 한다.

나. 설문 연구

사회 조사를 포함하는 설문 조사의 경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 만큼 피험자의 인권이나 안전, 건강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윤리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여 조사대상자의 경우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헌 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계획하는 단계에서 설문 조사에서 조사자는 알고 있지만 설문 대상자가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나 조사의 목적을 이야기하여 설문 대상자의 답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철저하게 배제될 수 있도록 설문의 설계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설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조작과 조사 대상자의 관련 문제 가능성을 배제한다.
- 설문 디자인에서 KNOW-HOW의 전수 즉 연구의 인수 및 인계가 매우 중요하다.
- 설문 조사 결과 데이터 선별의 논리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이 중요하다.
- 정확한 방법에 의한 데이터의 선별이 이루어 져야 한다.
- 선입견을 가지고 원하는 설문 결과만을 선택하는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실수를 경계해야 한다.
- 발생한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발생되지 않은 현상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경계해야 한다.
- 적절한 대조군 없이 결과를 적용하는 실수를 경계해야 한다.
- 정확하고 유의한 통계처리 및 해석이 필요하다.
- 정확한 일차 데이터의 보존과 기록이 중요하다.

관찰, 설문, 실험 연구에서 가공하지 않고 직접 얻은 일차 자료를 원자료라 하는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위조나 변조에 대한 조사는 원자료와 연구노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특히, 가공하지 않고 직접 얻을 수 있는 관찰값, 실험계획,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된 프로토콜, 연구노트, 분석기기 또는 컴퓨터의 출력자료, 사진, 인터뷰 녹취록 등의 원자료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미지 분석 연구

이미지 분석 연구의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이미지 자료 선별의 논리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 정확한 방법에 의한 시각 자료의 선별이 중요하다.
- 선입견을 가지고 원하는 시각 자료만을 선택하는 실수를 경계한다.
- 편향되지 않은 시각 자료의 선별이 중요하다.
- 주관적으로 시각 자료를 분석하는 실수를 경계한다.
- 적절한 대조군 없이 이미지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실수를 경계한다.
- 정확한 자료 보존과 기록이 중요하다.
- 사실 이외의 모든 것을 기록한다.
- 사진 촬영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한다.
- 잡지, 논문, 단행본 등 참고한 서적의 서지 사항과 페이지를 반드시

매일 기록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처리는 동일한 이미지 안에서 일부만 두드러지게 하거나 희미하게 하거나 이동하거나 제거하거나 삽입하지 않으며, 여러 이미지를 합하는 경우 이미지에 이러한 과정이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이미지를 배열하고 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지의 밝기, 대비, 색채균형 등은 전체 이미지에 적용하며 배경을 포함해서 원래의 이미지에 포함된 정보를 희미하게 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연구자는 평소 연구를 할 때 자신에게 속한 자료와 타인의 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비의도적인 표절 또는 우연적인 표절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디자인 개발 연구

디자인 개발 연구자는 창의적인 관점에서 연구 대상에 접근해야 함은 물론이며 동시에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디자인 지식을 혁신한다는 태도로 연구에 임해야만 한다. 의류학에서 디자인 개발 연구는 단순한 창작 행위가 아닌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학문임을 유념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개발 연구자는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속에서 더욱 건강한 인간의 삶을 창조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저작물이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하며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에서 표절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은 실질적 유사성으로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물의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며 차용된 양이 일정 정도는 되어야 하겠지만 양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저작자의 창의적 노력이 함축되어 있는 중요 부분이 차용된 경우라면 표절로 판단한다.

이 때 타인의 아이디어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생각, 분석 체계나 논리, 가설, 설명, 이론, 은유, 결론 등을 포괄하며 타인의 저작물이란 학술적인 저작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든 미발표된 것이든 인쇄되었든 웹자료든 타인이 쓴 글, 표,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미술 저작물은 회화, 서예, 조소,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 만화, 로고, 포스터 등 포함하며, 사진저작물은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을 포함한다. 영상 저작물의 유형은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기록 필름, 광고, 게임영상, 뮤직 비디오 등이며, 도형 저작물에는 특수 목적지도, 도표, 설계도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양식 전체이며 저작권침해란 창작적인 표현을 복제하는 것으로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했거나 혹은 작성된 복제물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할 경우가 모두 해당 된다. 실질적인 유사성이란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비록 구체적인 표현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은 없다고 해도 전체로서의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와 작품 속의 특정한 표현이나 세부적인 표현이 복제된 불법적인 복제의 경우에 해당된다.

디자인 개발 연구의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표절의 대상은 타인이 아이디어와 타인의 저작물 모두 포함한다.
- 타인의 디자인에 의존하여 자신의 아이디어가 생겼거나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도록 한다.
- 디자인 연구 개발 과정에서는 사실 이외의 모든 것을 기록한다.
- 크로키, 스케치 등 낱장으로 흩어질 수 있는 노트 사용은 삼간다.
- 아이디어의 우선권 즉 ORIGINALITY 보호를 위해 떠오르는 생각의 줄기와 단상 등을 모두 매우 구체적으로 매순간 반드시 기록한다.
- 연구자 아이디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진실성에 추호의 거짓이 없도록 유념한다.
- 연구노트의 증거적 가치를 중시한다.
- 디자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표절도 표절에 해당하므로 속이려는 의도 없이 적절한 인용방법을 모르거나 타인에게 속한 정보를 자신의 것과 혼동하여 제대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한다.
- 디자인 발표 시 공동연구자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공로가 합당하게 배분된 연구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연구노트 작성법

일반적으로 연구노트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의 기록으로서 연구가 진행된 후에도 실험 계획 및 기록된 정보는 연구노트를

통해 연구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복식 미학 및 디자인 연구 분야에서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주며 기록된 데이터는 후일에 연구자 스스로 연구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디자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리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분야의 특성에 맞는 연구 노트의 사용이 중요하며 날인이나 증인의 확인은 복식 미학 및 디자인 연구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야별 연구윤리: 복식사(한국)

1. 연구영역

의류학은 인문, 사회, 자연, 예술분야 등 여러 학문과 연관이 있는 복합학문이다. 그 가운데 복식사 분야는 복식의 역사를 대상을 하는 학문으로 인문과학(복식사, 직물사, 복식미학), 사회과학(민속조사:민속학, 인류학), 자연과학(의복구성 조사), 예술학(복식미학)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야이다.

현재 한국복식사에서는 각 시대별 복식의 역사를 문헌과 유물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복식사 분야에서는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생활사를 복원하며 문화 콘텐츠사업에도 많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양복식사에도 각 시대별 건축과 문화의 바탕에서 복식의 형태의 변화와 요인을 연구하고 현대 복식의 디자이너 별 연구가 큰 축을 이룬다. 한국복식사와 서양복식사 두 영역 모두 문헌연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인간 문화를 연구하는 복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식사 연구 세부상황에 맞는 연구윤리와 연구노트의 적용이 요구된다.

2.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윤리

1) 문헌연구

복식사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기초적인 분야이다. 문헌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기록하여야 하며 이는 정확한 인용과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 원전에 관한 출처를 분명히 밝힐 것- 한국복식사, 서양복식사를 막론하고 1차 자료에 대한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이상, 정확하게 원전에 대한 번역서를 밝혀야 한다.
- 최초 논문 작성자 언급- 원전을 이용하여 견해를 밝힌 최초의 논문 작성자를 논문에 언급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원전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재인용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하다. 처음으로 원전을 찾아내고 논문에 밝힌 저자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견해처럼 논문에 쓴다는 것은 연구 윤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이다.
- 고문헌의 경우- 번역한 기관과 원문의 텍스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문에 원문을 게재하지 못할 때는 정확한 원문을 볼 수 있는 문헌이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유물연구

가. 유물 열람시 연구윤리

복식사(한국)는 유물조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물열람에 따른 소장기관과 유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유물에 대한 해가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으며,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윤리지침이다.

-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품 등 복식 유물에 관하여 논문을 집필할 때는

반드시 소장기관에 열람신청을 하여야 한다.

- 열람신청을 할 때는 열람의 이유와 논문 게재 예정 년 월 및 게재예정 학회지 등을 명시한다.
- 열람허가를 받은 후에는 협의사항을 기록하고 해당서류를 소장기관과 연구자가 보관한다.
- 박물관이나 개인소장품 등 복식 유물을 열람을 할 때 얻은 지식을 소장처의 허락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논문을 포함한 개인적인 용도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조사 시 얻은 박물관이나 개인소장품 등 복식 유물의 정보를 소장 기관 보다 먼저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 논문 작성 시, 이용한 유물 자료에 관하여 출처 및 소장처를 분명하게 밝힌다.
- 열람신청을 하여, 이용한 자료로 논문 또는 도서가 출간되었을 시에는, 유물을 소장한 기관에 별쇄본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물의 실측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장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실측된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며, 필요한 부분을 최소의 범위 내에서 확인하며 무리하게 재 실측을 고집하지 아니한다.
- 유물의 열람 또는 실측 시에는 노트와 연필, 지우개를 사용한다. 볼펜 등의 수성이나 유성펜의 사용은 유물에 오염을 문힐 수 있기 때문이다.
- 촬영과 실측 시에는 유물 소장 기관의 관리 지침에 따르고, 촬영된 메모리와 완성된 실측도를 소장기관에 제출한다.
- 실측 시에는 조사에 필요한 안전한 장비(캡, 마스크, 장갑, 줄자, 연필, 지우개 등)을 준비한다.

나. 박물관, 미술관 소장 유물 복제 시 윤리

복식사 분야의 연구에 이용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복제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준수해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유물의 실측 시 주의 사항과 윤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 복식 유물을 복제 할 때는 유물 복제 신청을 하여 소장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물복제 신청 시에는 복제의 용도를 분명하게 밝힌다.
- 유물복제를 위하여 소장처에 무리하게 열람과 복제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 유물의 복제 시에는 유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여, 동일유물을 활용한 제 3자의 연구, 복제, 고증, 응용 등에 대한 1차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다. 상세한 유물정보가 있으면 유물 열람 횟수를 최소화하여 열람에 따른 유물 손상을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소장처에 먼저 복제품 기증을 제의할 필요는 없다.
- 유물 복제를 수행하여 복제품을 별도로 소장기관에 기증할 경우, 기증서를 받고 이를 연구노트에 기입한 후 기증서를 첨부한다.
- 유물복제 이후, 유물을 전시 또는 발표 시에는 유물 소장처의 허락을 말아야 한다. 이는 유물을 직접 열람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발표된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발표하였을 때도 동일하다.

3) 민속조사 연구

복식사 연구에서는 현지조사를 수행할 기회가 자주 있다. 분야에 따라서 현지조사는 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을 따른다. “인류학적 현지조사 방법은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대화(conversation),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계보사용(genecalogical method), 제보자사용(informant), 생애사(life history)와 같은 다양한 연구기술이 있다”(윤택림, 2004).

참여관찰의 방법은 한국복식사 조사보다 국외 지역의 민속복조사와 같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조사지의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현지인들의 시각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한국복식사 분야의 민속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심층면접과 대화이다. 물론 국외의 민속복식이나 민속조사에도 심층면접과 대화의 방법이 사용된다. 이를 위하여 심층면접과 대화를 하려면 ‘언어’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언어란 외국어뿐 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언어 즉 지방어 또는 방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된 전공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생애사연구도 복식사분야에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애사연구도 심층면접이나 대화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경험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구술에 연구자가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구술을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 현지에 도착하기 전 가능한 한 개인적 연계망을 통하여 연구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사람을 동원하거나 동반한다. 이는 연구를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본이다. 연구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한다. 1995년 국가기관에서 어느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복식유물을 조사하러 갔을 때 문서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니 그 사찰의 관계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소속 대학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하였다.
- 연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며, 조사대상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해를 끼치는 것은 없을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조사

시작 전에 조사를 한 후 연구에 사용되며 발표된다는 것을 알리고 조사와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 조사대상자 현지인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수준으로 질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지의 방언과 관련 복식 용어는 이해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조사 시에는 미리 정해 놓은 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한다.
- 조사 시 필요하여 대여하여 온 사진이나 자료는 반드시 돌려준다.
- 조사가 끝난 뒤, 연구의 발표 시에는 제보자(면접대상자)의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4) 사진 및 그림 출처에 대한 연구 윤리

복식사 분야의 연구는 연구 자료로 사진이나 그림의 사용이 흔하게 있다. 한국에서는 박물관이나 관계기관에서 발간된 도록에 있는 사진과 그림의 인용은 논문 게재 시에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승낙을 대신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연구에 사용하는 사진은 일일이 게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외는 사진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유물 소장기관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 유물이 아닌, 작가의 창작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에서 사용하는 그림의 인용도 소장처에 직접 메일을 보내,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진 목록표에 이를 명시한다.
- 잡지와 인터넷 등에 있는 사진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검색 날짜 등을

밝혀야 한다.

3. 연구노트 작성 요령

1) 문헌 연구 노트 작성 방법

- 연구 주제와 아이디어, 의문점 등은 항시 기록: 일시는 상시 기록
- 연구 진행 과정을 기록
- 번역 자료 출처의 기입
- 사진 자료 및 관련 기사 등을 정리, 보관
- 참고문헌 관리

2) 유물의 조사가 요구되는 연구

한국복식사의 유물 기록은 복식유물보존처리 과정과 유사하다. 유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더불어 조사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 기본 데이터(조사자, 일시, 장소, 대상유물)기입
- 장갑과 마스크를 하여 조사자의 몸과 유물을 오염과 유해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유물의 기록은 항상 연필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성펜이나 볼펜 등의 사용은 삼간다. 이는 유물의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사진 촬영 및 실측 시에는 곧바로 정리하여 첨부한다.

3) 민속조사

- 기본 데이터(조사자, 일시, 장소, 조사대상자)기입

- 조사대상지와 조사대상자를 선정에 도움을 받은 상황도 기입한다.
- 조사 시에 기록을 위하여 메모장, 노트, 녹음기, 사진기 등을 준비한다.
- 녹음과 촬영을 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시행하여 확인한다.
- 녹음과 촬영기기의 메모리와 배터리는 충분히 준비한다.
-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지는 미리 준비하며, 질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조사가 끝난 후에는 과정을 정리한다.
- 구술조사일 경우에는 녹음과 기록을 보관한다.
- 다음은 2001년 경기도박물관에서 시행한 경기도 민속조사 의생활 자료 조사를 위한 질문내용이다.
 - 의복에 관한 금기사항: 의복은 언제 만들어도 괜찮은가?
금기되는 시기가 있는가?
 - 의복을 만드는 시기: 언제 만들면 못 쓰는가?
 - 여러 가지 의복의 제도, 재료, 색채, 명칭, 재단, 제작시기,
 - 계절 등을 자세히 적으시오.
 - 평상복, 예복, 외출복, 일복(노동복)등으로 구분하고, 용도, 성별,
 - 연령으로 세분할 것.
 - 의류 습관: 의류에 관한 미신은 없는가
 - 방한복: 방한복이 따로 있는가?
 - 우장(비옷): 우장의 여부, 종류, 재료, 형태
 - 토수(토시)의 사용: 사용 여부, 계절별로 다른가? 재질, 형태는?
연령과의 관계는?
 - 버선사용: 사용여부, 계절별로 다른가? 재질, 형태는? 버선본이

있는가?

- 명절의복: 명절의복이 따로 있는가?, 어떤 의복을 입는가?
- 노래: 의복, 길쌈 등과 관련된 노래가 있는가?
- 여자의 속옷: 속옷의 종류, 명칭, 특징, 재질, 색채, 계절별로 다른가?
- 의복의 선물: 의복을 선물 할 때가 있는가? 어떤 때에 선물하는가?
- 길쌈: 길쌈 식, 재료, 방법, 작업 전후에 어떤 의식은 없는가?
- 혼례복: 전통 혼례복인가, 서양 의복인가? 전통혼례복인 경우, 제작용인가, 대여품인가? 혼례복의 명칭, 재단, 색채, 제작시기, 제작자를 기록
- 혼수의복: 출가 때에 누구의 의복을 해 가나? 무엇을 해가나? 몇 가지나 해 가나? 왜 해가나?
- 출가 때 남자는 왜 하며, 언제, 어떻게 하는가?
- 수의 제작: 수의는 미리 만드는 가? 혹은 사후에 만드는가?
- 수의 제작 시기: 만드는 시기는? 금기하는 시기가 있는가?
- 화장구 및 단장구: 어떤 도구들이 있는 가? 명칭, 형태, 사용 이유는?
- 장식구: 옷에 다고 다니는 장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어느 때에 다는가?
- 수건: 수건의 재료, 만드는 시기?
- 신: 종류와 명칭, 성별, 연령 구분
- 가락지, 반지: 무슨 반지인가? 어느 손가락에 끼는가?
- 의류보관: 도구, 장소, 계절별 구분 여부

- 세탁: 비누는 언제 썼나? 비누 대용품은 무엇이 있나?
- 옷감 명칭: 나일론은 언제 사용했나?

올바른 인용

논문을 작성할 때에 자신의 고유한 생각만으로 100%를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신의 논문의 권위를 높이고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은 활용하는데, 이때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의 공적(credit)을 인정해주고 올바르게 인용하여야 한다. 인용을 통해 원저자에게 그의 글과 아이디어에 대한 공적을 주는 것은 표절의 걱정 없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용은 자신의 논변을 강화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으며, 또한 문제의 이해를 돕고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신중섭 등, 2007)

“정당하게 인용하면 아무리 모방하거나 복제해도 표절이 아니다”(이준웅, 2012: p. 11)라고 한다. 이는 너무 많은 인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표절이어서가 아니라, 논문의 독창성이 줄어드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표절을 걱정하기 보다는 정당하고 올바른 인용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1. 인용의 원칙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http://www.kaoas.or.kr>)에 따르면 인용 및 출처 표시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은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 2)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절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위 지침의 의미는 1)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2) 가급적 나의 저작물에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3)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 2011a: 117-118). 좀 더 구체적으로 올바른 인용의 원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인용한다.
-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만 인용한다.
- 원저자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용한다.
- 가능한 짧게 한다.
-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공표되지 않은 학술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웹상에 가져온 자료나 정보의 경우,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이나 단행본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처럼 반드시 출처(URL 주소와 작성일 또는 최종

접속한 날짜 등)를 밝혀야 한다.

-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의견, 비판점이나 역사적 사실은 직접 인용하던 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 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다른 언어로 쓰인 문헌에서 인용할 때는 인용 부분을 번역하여 본문에 넣고 원문은 주로 처리하나, 반드시 원문을 인용해야 한다면 원문인용도 가능하다.
- 사실에 관한 정보 등 일반 상식이나, 특정분야의 잘 알려진 일반 지식의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다. 상식, 비상식을 구별할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인용표기를 하도록 한다 (신중섭 등, 2007, pp. 117-121; 정학섭, 2007; 한국연구재단, 2011a; 황은성 외, 2007, pp. 126-127).

2. 인용의 종류 및 올바른 인용 방법

1) 직접인용

원문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인용을 '직접 인용'이라 한다.

(1) 직접 인용이 필요한 경우(신중섭 등, 2007, pp. 117-121)

- 문학작품, 사료, 기본서를 인용한다.
- 원문의 표현 이외에 다른 표현 방법을 찾을 수 없다.
- 직접 인용하지 않으면 내용 전달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 직접 인용으로 연구자의 견해가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다.
- 비판이나 코멘트가 필요한 입장이나 논증을 제시한다.
- 특별히 감동적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다.

(2) 올바른 직접 인용 방법(신중섭 등, 2007, pp. 117-121)

① 인용 방법: 직접 인용인 경우 인용문의 길이가 세줄 이하면 일반적으로 문장 속에 넣고 인용할 부분을 큰 따옴표(“ ”)로 표시하고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만약 직접 인용문이 네 줄 이상으로 긴 경우에는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더 많이 둔 문단을 따로 만들어 인용한다.

② 인용문의 생략: 인용문은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나, 생략한 부분으로 인해 인용문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논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이렇듯 생략할 경우에는 3점 생략 부호(...)를 사용한다. 문장의 끝 부분이나 앞부분, 문장 전부가 하나 이상 생략된 경우에는 4점 (....)을 이용한다.

3점 생략부호의 예

“수학이 ... 물리적 실재의 열쇠가 되었다.”

4점 생략부호의 예

“창조적 원리는 수학에 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순수 사고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직접인용의 가필

독자의 이해를 돕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한 두 단어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이때 인용문의 원의미를 바꾸거나 왜곡해서는 안되고, 덧붙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브래킷([])을 사용한다.

직접인용에서 가필의 예

“그 사람들[프랑스인들]은 한국사회를 ...”

2) 간접인용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원문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반영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 한다. 간접인용에서는 인용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문장의 형태만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문체가 제시되도록 자신의 말로 다시 써야 한다.

(1) 간접인용 방법

① 원저자의 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paraphrasing) 논문 속에 삽입하는 것.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 바꿔쓰기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색깔이 담긴 언어로 표현도록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한동교육개발센터, 2009. pp.30-41).

원문

물리력, 부, 또는 지식도 적절히 사용하면 그 밖의 여러 가지 원력의 원천을 장악할 수 있다. 결국 어떤 지배 엘리트가 ... 어떠한 권력의 수단을 활용하건 간에 물리력, 부, 지식이 궁극적인 지렛대가 된다. 이 세가지가 권력의 3요소를 이룬다.

간접인용의 바르지 않은 예

토플러에 따르면, 물리력, 부, 또는 지식도 적절히 사용하면 그 밖의 여러 가지 원력의 원천을 장악할 수 있다. 어떠한 권력의 수단을 활용하느냐에 상관없이 물리력, 부, 지식이 궁극적인 지렛대가 된다. 이것들이 권력의 3요소인 것이다 (앨빈 토플러, 1996)

간접 인용의 바른 예

토플러는 모든 권력이 결국 그가 '권력의 3요소'라 부르는 물리력, 부, 그리고, 지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앨빈 토플러, 1996).

- ② 간접 인용된 부분이 끝나는 지점에 출처표시를 하여 간접 인용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
- ③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글에서 재인용을 바람직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재인용이라고 밝혀야 한다.

(2) 올바른 간접 인용을 위한 말바꿔 쓰기 (한국연구재단, 2011a, p. 119)

- ① 말바꿔쓰기의 기본 원칙

원전과 비슷한 어휘수를 유지한다.

원전의 독특한 어휘나 절은 인용부호(“ ”)로 묶는다.

원전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원저자는) ~주장한다. 설명한다’ 등으로 나타낸다.

② 말바꿔쓰기에서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제언

원전을 주의깊게 꼼꼼히 읽는다.

원전에서 이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원전을 덮거나 멀리한다.

문장 구조를 모방하는 방식은 피한다.

자신의 생각과 말로 해석한다.

3. 출처 표기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에는 ① 각주나 미주와 같이 주석을 이용하여 출처표시를 하거나, ②내주와 참고문헌을 사용하여 출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내주란 문장 중간에 간단하고 인용한 문헌의 저자와 출판년도를 표시하고, 맨 뒤에 ‘참고문헌’목록을 만들어 인용한 문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형태이다.

인용이나 참고문헌 표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학문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류학회의 경우는 내주와 참고문헌을 사용하여 출처표시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참고문헌 작성 규정은 한국 의류학회

홈페이지(http://www.ksct.or.kr/sub4_01_5.php) 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한국의류학회지 투고 시에는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부록참조)

저자의 자격

1. 저자의 정의

- 출판물에 있어서 저자의 자격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연구논문의 경우, 그 역할의 분담과 중요도, 기여도 등에 따라 저자의 자격 유무 및 저자의 순서가 정해진다.
- ‘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s)을 한 사람을 칭한다. 즉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의 공적 신뢰성을 가지는 자이다.
- 저자와 다른 공헌자와는 차별화(authors vs contributors)가 되어야 한다(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8).

2. 저자의 자격규정

저작의 자격

1)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 2) 논문의 초안을 만들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3) 출판될 논문 최종본을 승인한 사람

저자의 표시(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0조, 2010)

-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

3. 부당한 저자 유형

- 일반적으로 부당한 저자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논문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부당한 저자표시 역시 연구자의 부정직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출판윤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부당한 저자의 유형(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008)

1)선물저자(gift author): 공짜저자라는 용어도 사용되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다. 흔히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예저자라고도 한다.

2)유령저자(ghost author):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3)교환저자(swap author):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과 연구자와 서로 자기논문에 상대방을 저자에 포함시켜주는 경우를 말하며,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4)도용저자: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때로는 외국의 유명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4. 저자의 순서

- 학술 논문에서 저자는 보통 제1저자(first author), 공동저자(co-autho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나뉜다.
- 제1저자는 저자 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데이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구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자이다.
-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공동저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 교신저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를

말하는데, 논문 투고, 심사자와 교신하는 역할을 맡는다.

- 교신저자는 보통 책임저자 또는 제1저자가 될 수 있다.
- 교신저자는 논문 출판의 이전, 과정, 그리고 그 후 용이하게 출판사나 독자와 교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최근에 어떤 학술지는 공동교신저자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 논문 저자의 순서의 일반적인 기준
 - 1) 논문 저자의 순서에 대하여 합의된 원칙이나 문헌은 없다. 그러나 연구책임자는 제일 뒤로 배열하고, 연구의 주요 기여자인 제1저자는 앞으로 온다.
 - 2) 저자 순서 결정은 연구 시작 전 전원 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저자들의 기여도나 기여 부분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한다.
 - 4) 저자 순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에 기록한다.
- 학위논문을 학술에 발표할 경우
 - 1)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지도교수 모두 저자가 될 수 있다.
 - 2)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능력이 우수한 학생 또는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생 단독저자가 될 수 있다.
 - 3) 지도교수가 주제와 방법을 제시하고 학생이 이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논문은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 4)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더라도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합하여 연구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한 경우는 논문을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한 사람이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박물관 편 (2001).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경기민속지, IV 의·식·주
- 경기도박물관 편 (2003).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경기민속지, VI 생업민속
공예
-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평가정책과. (2007).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자료검색일 2008. 12.30. 자료출처 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200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자료출처 <http://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200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73호, 2008.7.28 개정), 자료 검색일 2008. 12.30.
자료출처 www.mest.go.kr
- 교육인적자원부(2007). 외국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대학지원국
학술진흥과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정책단 연구윤리정책 TFT.
자료출처 <http://www.krf.or.kr>
- 권철홍 (2010).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 및 연구윤리. 한국의류학회 의류학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워크샵. 서울:한국의류학회
- 김형순(2008). 올바른 논문저자 표기와 연구윤리 제2회 연구윤리 포럼,
85-115. 교육과학기술부·한국학술진흥재단. 자료출처 <http://www.cre.or.kr>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2008).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자료출처 <http://kamje.or.kr>

- 박정규, 황응수(2011). 생물안전관리. 실험안전의 길잡이, 서울: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 서울대학교(2010).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자료출처 <http://www.snu.ac.kr>
- 서울삼성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2008). 피험자동의서,
자료출처 <http://www.e-irb.com/downloadforms>
- 서이종 (2012). 인간행동연구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윤리. 제 5회 연구윤리
심포지엄-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연구 윤리.
- 서추연(2008). 의복구성학분야의 연구윤리. 2008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41-46.
- 신중섭 등 (2007).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 방안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보고서.
- 신옥순 (2001). 질적 연구의 윤리. 초등교육연구, 14(2), 105-117.
- 연합뉴스(2008).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위원회' 8월 출범,
자료검색일 2008.9.30. 자료출처 <http://www.yonhapnews.co.kr>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아르케.
- 이유리, 이미영 (2007). 패션마케팅 분야의 4년제 대학 교육과정과
『복식』지 연구동향 비교. 복식, 57(5), 123-139.
- 이은영, 정인희 (2010). 의류학연구방법론(개정판). 파주:교문사.
- 인하대학교(2007).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2007.10.24), 자료출처 <http://www.krf.or.kr>
- 정상조(2003.3).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法學, 44(1), 107-140.
- 정운선, 한국의류학회(2008). 피복과학분야 연구윤리, 한국의류학회
연구윤리링크샵 -복합학문의 연구윤리-, 서울:한국의류학회

- 정학섭(2007). 연구윤리와 연구자료, 자료의 해석: 연구자료의 이용과
이용의 윤리-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10년 제 1차
연구윤리포럼.
- 조용환(1999). 질적연구:방법과 사례. 서울:교육과학사
- 최규순(2008). 한국복식사 연구윤리, 한국의류학회 연구윤리워크샵 -
복합학문의 연구윤리-, 서울:한국의류학회
- R&D 특허센터(2011). 연구노트 핸드북, 대전: 특허청
- 특허청(2010) 전자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전자노트 인프라 구축 및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연구. 대전:특허청
- 한국연구재단(2011a).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대전: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2011b).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대전: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2011c). 좋은 연구 실천하기: 연구윤리 사례집.
대전: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2011d). 좋은연구 좋은이야기, 대전:한국연구재단
- 한국외국어대학교(2007). 연구윤리위원회 규정(2007.9.1). 자료출처
<http://www.krf.or.kr>
- 한국윤리학회(2007). 연구윤리 규정, 자료출처 <http://www.kethics.com>
- 한국의류학회(2008). 한국의류학회 연구윤리 워크샵-복합학문의 연구윤리-,
서울:한국의류학회
- 한국조사연구학회(2012). 조사연구 윤리규정. 자료검색일 2012.6.15,
<http://www.kasr.org/>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R&D특허센터(2008). 연구결과물 보호와 활용을 위한
연구 노트 작성 전략. 자료출처 <http://www.cre.or.kr>

한국학술단체연합회(2004).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한국의류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Vol. II.

한동교육개발센터(2009). 학습윤리가이드북. 포항:한동대학교.

황은성, 김진원, 김용철, 서순탁(2007). 서울시립대학교 이공계 및 사회과학대학원 연구윤리강의교재. 서울:서울시립대학교..

Christians, C. G. (2000). Ethics and politic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K. Denzin & Y.S. Lincoln (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133-155.

Lincoln, Y. S. (1990). Toward a categorical imperative for qualitative research. In E. W. Eisner & A. Peshkin (Eds.). *Qualitative Inquiry in Education: The Continuing Debate*.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277-295.

UNESCO(1988). Traditional restoration techniques: a RAMP study, Retrieved May 31, 2012, from www.unesco.org/webworld/ramp/html/r8817e/r8817e00.htm#Contents

UNESCO(1994). Ethical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Comparative Social Science Research in the Framework of MOST, Retrieved May 2, 2012, from www.unesco.org/shs/most

,

부 록



한국의류학회 윤리강령 (전문)

한국의류학회는 의류학에 관한 학문의 연구와 패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국내외 학계 및 관련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회원 개개인의 학문적, 전문적 능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 공익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본 윤리강령은 한국의류학회 회원으로서의 자세 및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학술지 발간 기관으로서의 윤리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학회 회원과 학회는 다음의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장. 학회 회원의 윤리지침

제 1절.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으로 칭함)으로서의 자세

【회원의 권리와 존엄성 존중】

1. 회원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다.
2. 회원은 타회원들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간의 학문적 다양성을 인정 한다.
3. 회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학회 및 타회원들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회원은 자신의 언행으로 인하여 학회, 타회원, 연구 참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1. 회원은 의류학 분야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학술 연구, 타학문 및 관련업계와의 교류, 연수 등을 통한 자기 발전의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 2절. 연구자로서의 자세

1. 회원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회원은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회원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회원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만을 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5. 회원은 이미 발표된 바 있는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단, 기 출판기관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회원은 공개된 학술 자료나 타인의 글을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되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타인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도 정보 제공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회원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피실험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 2장. 학술지 발간 기관의 윤리지침

제 1절. 회원정보 및 연구내용 보호 규정

1. 학회는 회원들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학회는 회원의 개인 정보 및 진행 중인 연구내용에 대한 공개가 필요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최소한으로 공개하며, 법적으로 정보 공개 가 요구될 때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규정

1.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회원들의 인격과 학문적 신념을 존중하며 투고된 연구물에 대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연구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연구내용 및 게재 여부,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 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와 그 연구물에 대하여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3장. 윤리강령 확인 및 시행지침

1. 본 학회는 제출된 논문이 본 윤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2. 위의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 원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처분은 다음 시행 지침에 의한다.
 -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이상의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해야하며 위반시에는 윤리위원회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강령 위반을 인지했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해야하며,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드러날
경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어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경우라도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위반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그 신상에 대한 비밀 을 보장한다.

제 4장. 윤리위원회

학회는 본 윤리강령의 올바른 시행을 촉진하고 위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 위원회를 둔다.

1.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고문,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반으로 지목된 회원에 대하여 청문, 서면 등을 통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처리 절차는 관례에 따르며, 심의 의결은 위원의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반했음이 판명된 회원에 대하여 경고, 회원 자격 정지,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외부에 공개 할 수 있다.

부 칙

본 윤리강령은 평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2008년 4월부터 시행한다.

한국의류학회지 투고규정

(2012. 9. 14. 개정)

◆ 일반규정 ◆

1. 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투고자 전원이 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은 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원보(original paper)로서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투고자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3.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본 논문은 석사(혹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학위취득자가 주저자(제1저자)여야 한다.
4.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다른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 학회에 별도의 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게재 보문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 중 접수순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편집위원회는 채택된 원고 중 그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보충, 수정을 요구하거나 자구의 수정가감을 할 수 있다.
7. 논문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면수에 따라 부과한다.

- ㄱ. 학회에서 페이지 당 부과하는 금액을 투고자가 부담한다(인쇄면수 12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게재료 부담).
 - ㄴ. 사진은 흑백사진을 기준으로 하고 칼라나 특수한 효과를 내기 위한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8. 본 학회지에 게재된 보문의 별쇄는 20부까지 저자에게 제공한다.

◆ 투고규정 ◆

1. 투고논문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ksct.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투고한다. 투고자는 투고 시에는 [연구 윤리 협약서]와 [저자점검표]를 학회에 제출하고, 논문 심사 완료 시에는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2. 논문을 투고할 때는 또는 MS Word를 이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전환하여 제출한다. 이때 논문의 저자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3.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국문 및 영문 저자명(교신저자 표시)과 소속을 기재하고 또는 MS Word 파일로 제출한다. 논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 저자명과 소속만 기재한다.
4. 투고논문의 길이는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 용지 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호글 기준)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 point	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 160%	
용지여백: 위쪽 20mm, 아래쪽 15mm	오른쪽 30mm	
왼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MS Word 기준)

글꼴: 바탕	글자크기: 11 point	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 1 줄	
페이지 설정: 위쪽 3.5cm	아래쪽 3cm	오른쪽 3cm
왼쪽 3cm	머리글 1.5cm	바닥글 1.75cm

5. 초록의 길이는 영문 300단어 이내로 A4 용지 1장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논문내용의 키워드를 5개 이내로 선정하여 초록 밑에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표기한다. 논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 키워드만 표기한다.
7. 표와 그림의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8. 수량의 단위는 되도록 S.I. 단위를 사용한다.

9.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한국의류학회지 참고문헌 작성규정’(http://www.ksct.or.kr)을 따른다.

그 예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문헌 작성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APA 스타일 매뉴얼(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준하여 작성한다.

학회지:

Chen-Yu, J. H., Eberhardt, D. M., & Kincade, D. H. (2007). Antibacterial and laundering properties of AMS and PHMB as finishing agents on fabric for health care worker's uniform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5(3), 258–272.

Song, M. H., & Hwang, J. S. (2008). The effect of fashion leadership on fashion products purchase in surrogate internet shopping mal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2), 179–189.

단행본:

Armstrong, H. J. (2005). *Patternmaking for fashion design* (4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Choi, J. H., & Kim, M. J. (2011). *Clothing and health*. Paju: Kyomunsa.

의류학 분야 논문지도 및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윤리 안내

저자: 유효선(서울대학교)
이미영(인하대학교)
서추연(동아대학교)
하지수(서울대학교)
송미경(서울여자대학교)

발행일: 2012년 10월 20일

발행인: 김 은 애

발행처: 사단 법인 **한국의류학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122

신대림자이아파트 201동 1305호

Tel: (02)844-3601

Fax: (02)844-2651

홈페이지: www.ksct.or.kr

E-mail: ksct@chol.com

